

청초 동북지역의 유배 지식인*

－ 함가(函可)와 시 창작을 중심으로

박영순**

〈目 次〉

1. 시작하며
2. 함가의 유배원인과 유배생활
 - 1) 유배원인과 가족사
 - 2) 유배지에서의 생활
3. 함가의 시 창작 내용
 - 1)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
 - 2) 고국에 대한 절개와 추도
 - 3) 지인에 대한 감회와 슬픔
 - 4) 시승의 정신적 경계
4. 시적 특징과 『천산시집(千山詩集)』의 평가
5. 마치며

1. 시작하며

청초는 통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반청 세력을 진압하고 한족 지식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기도 했다. 이에 순치(順治)시기부터 정권 안정을 위협하는 한족 지식인들은 동북지역의 심양(瀋陽)·상양보(尙陽堡)·철령(鐵嶺)·영고탑(寧古塔) 등으로 유배 보내졌다. 그들은 대체로 명대 유민(遺民)이자 청초의 유배자라는 이중적 신분으로 동북지역의 유배문인 집단을 형성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6A3A02102737).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부교수

청초에 문자옥(文字獄)으로 인해 가장 먼저 동북지역 심양으로 유배 간 사람은 시승(詩僧) 함가(函可: 1611-1660)이다. 그는 남명(南明) 시기에 개인적인 사서(史書) 『재변기(再變紀)』를 쓴 화근으로 순치 5년(1648) 심양으로 유배되어 10여 년의 유배생활을 했다. 이는 청초 최초의 문자옥 사건이 되었다. 함가는 명말청초 교체기의 역사적 변환과 사회적 급변속에서 살다가 유배되었고, 그의 가족들도 대부분 항청활동을 하다가 순절했다.

기존에 유배와 문자옥 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에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청초 동북지역의 유배자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황량한 유배지에서 동북지역 관련하여 문헌 저술 및 교육활동을 하거나 시사(詩社)를 설립하여 시 창작활동을 하면서 유민으로서의 시대적 아픔과 유배자로서의 고된 삶을 함께 해왔다. 그래서 동북지역 유배문인에 관한 연구는 문학·지역학·역사학을 융합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범주는 대체로 역사적 시간(청초)과 지리적 공간(동북)을 배경으로 하고, 당시 유배문인의 창작(유배시)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초에 가장 먼저 동북지역 심양으로 유배된 함가와 그의 작품집 『천산시집(千山詩集)』을 대상으로 하여 그의 삶과 시 창작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 시대의 작가와 작품은 그 시대적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특수한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문인의 작품은 개인을 넘어 시대적 함의를 공유하며, 그런 문학 작품은 시대와 개인이 생산한 하나의 문학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자'(지식인-문인)는 어떤 '특수한 상황'(시대변화)속에서 어떤 '행위'(시 창작활동)를 통해 '지식'(문학작품)을 생산해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생산의 도식을 본고의 연구에 접목해보면,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자'(유배자-함가)는 어떤 '특수한 상황'(청초 문자옥) 속에서 어떤 '행위'(유배시 창작)를 통해 '지식'(『천산시집』)을 생산해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행위자'-'행위'-'지식'이라는 틀로 함가의 고대문학 지식생산과정을 살펴보고자한다. "지식인의 지식생산"이라는 범주에서 유배문인 함가(지식인)가 어떤 상황(문자옥)에서 어떤 작품(지식)을 창작(생산)하였는지, 그리고 그 특

정과 함의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함가에 관한 초기 연구서는 주로 함가의 전기와 평전에 관한 자료들이며,¹⁾ 또한 동북지역의 유배사와 동북 시사 및 문자옥 연구서에도 함가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²⁾ 이 밖에 함가와 빙천시사(氷天詩社), 청대 유배문인의 시 창작 및 함가의 시 창작 관련 학술논문도 있다.³⁾ 그러나 함가의 시 창작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유배 원인 및 가족사를 배경으로 하고, 시 창작과 시인의 심정을 분석하고, 나아가 시적 특징과 평가 등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다룬 단편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며, 한국에서는 거의 미흡한 상황이다.⁴⁾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함가와 그의 작품집 천산시집(千山詩集)을 주요 텍스트로 하여,⁵⁾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함가의 유배 원인과 가족사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 함가의 시 창작 내용을 분석하고, 셋째, 함가의 시적 특징과 『천산시집』의 평가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유민이자 유배자이며 시승의 신분으로 살아간 청초 지식인으로서의 삶과 고뇌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 1) 1916년 진백도(陳伯陶) 『승조월동유민록(勝朝粵東遺民錄)』에 함가의 전기가 실려 있고, 1930-40년대 사국정(謝國楨) 『명청지제당사운동고(明清之際黨社運動考)』, 『청초동북유민고(淸初東北流人考)』에는 함가와 빙천시사(氷天詩社)에 관한 내용이 일부 소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왕재민(王在民) 『승려함가평전(函可和尚評傳)』, 왕종연(汪宗衍), 『명말잉인승려연보(明末剩人和尚年譜)』 등에는 평전 및 연보를 소개했다. 관련 내용은 陳伯陶, 『勝朝粵東遺民錄』, 上海古籍出版社, 2011. 謝國楨, 『明清之際黨社運動考』, 上海書店出版社 2006 등 참고.
- 2) 문자옥과 동북지역의 유배자들에 대한 연구서로는 張書才·杜景華, 『清代文字獄案』, 紫禁城出版社, 1991. 李興盛, 『東北流人史』, 黑龍江人民出版社, 1990 등이 있다.
- 3) 연구논문으로 秦嘉, 『函可千山詩集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于美娜, 『函可詩歌研究』, 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등이 있고, 일반 논문으로 邱林山, 「遺民詩僧函可與淸初詩壇」, 『西北師大學報』, 2016, 第6期. 薛虹, 「函可和氷天詩社」, 『史學集刊』, 1984, 第1期 등이 있다.
- 4) 함가에 관한 1차 자료로는 函可 撰·張春 著, 『千山詩集·不二歌集』, 黑龍江大學出版社, 2011. 函可 著, 嚴志雄·楊權 點校, 『千山詩集』, 中央研究院 中國文哲研究所, 2008. 函可 撰·楊輝 校注, 『千山詩集校注』, 遼海出版社, 2007 등이 있다.
- 5) 『천산시집』은 강희 42년(1703)에 초각본(初刻本)이 있다. 건륭 40년(1775)에 문자옥으로 인해 금서가 되었다가, 도광 연간에 다시 중각본(重刻本)이 나왔다. 본고는 函可 撰·張春 著, 『千山詩集·不二歌集』(黑龍江大學出版社, 2011. 이는 강희 초각본을 저본으로 했음)을 저본으로 하며, 본 주석에서 『千山詩集』은 모두 이 책을 의미한다.

2. 함가의 유배원인과 유배생활

1) 유배원인과 가족사

청초의 유배는 주로 통치자들의 권력 유지와 정권 확립을 위한 일종의 통치 수단이기도 했다. 청초의 유배자는 대체로 정치투쟁에서 실세한 자, 전쟁의 포로, 도인법(逃人法)·문자옥·과장안(科場案) 등으로 연루된 주로 지식인(문인)들이 많았다. 청나라 때 유배지역은 대체로 순치, 강희 시기에 요령의 성경(盛京: 봉천 [奉天])이라고도 하며 현, 심양)과 상양보를 시작으로 하여 길림의 오나(烏喇), 흑룡강의 영고탑을 이어, 옹정 시기에 삼성(三姓: 동북삼성과 내몽고 북부), 객이객(喀爾喀: 몽고와 만주 일대), 과포다(科布多: 몽골 서북쪽 부근) 등을 거쳐 건륭 시기에는 이리(伊犁)·오로목제(烏魯木齊)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청나라가 중원을 점령한 후 문자옥 사건으로 인해 가장 먼저 동북으로 유배 간 사람은 승려 함가(函可: 1611-1660)이다. 함가는 명 만력(萬曆) 39년(1611)에 태어나 순치(順治) 16년(1660)에 세상을 떠났다. 광둥(廣東) 박나(博羅) 출신이며, 자 조심(祖心) 호 잉인(剩人)이며, 속명은 한종래(韓宗駉)이다. 명대의 남경 예부상서(南京禮部尙書) 한일찬(韓日纘)의 장자이다. 함가는 “의리가 있고 호쾌하고 너그러운 성격”으로 교제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함가의) 명성이 한때 세상에 유명해져서 해내의 명사들은 한종래[함가]와 교제가 없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다.”⁶⁾고 했다.

명말청초에 사회적, 정신적으로 의탁할 곳이 없었던 지식인들은 은일의 차원에서 불문에 입문하여 스님이 된 경우가 많다. 함가 역시 승정(崇禎) 12년(1639)에 공은노인(空隱老人) 도독(道獨)을 스승으로 모시고 강서(江西) 여산(廬山)으로 들어가 불교에 입문하여 함가란 법명을 얻었다. 승려의 길을 걸었지만 완전히 속세를 등지고 산 것은 아니며, 특히 나라와 백성에 대한 걱정과 항청복명에 대한 의지와 절개는 변함이 없었다.

6) “性好義，豪快疏闊。”，“聲名傾動一時，海內名人以不獲交韓長公駉爲恥。”函呈，「千山剩人可和尚塔銘」，『千山詩集』，10쪽. 함가의 일생에 관한 내용은 「千山剩人可和尚塔銘」을 참고.

그 예가 바로 순치 2년(1645)에 쓴 『재변기(再變紀)』로 인해 순치 5년(1648) 4월 심양으로 유배를 가게 된 문자옥 사건이다. 『청세조실록(淸世祖實錄)』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실려 있다.

초무남방총독군무대학사(招撫南方總督軍務大學士) 홍승주(洪承疇)가 광동(廣東)의 유승(游僧) 함가에게 호신포를 주어, 불경을 가지고 광동으로 돌아가다가 강녕(江寧)의 수문병(守門兵)을 만나 복왕(福王: 朱由崧)이 완대월(阮大鍼)에게 준 편지와 『재변기』 1권이 발각되었다. 그 속에는 청초가 기피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홍승주가 함가의 아버지와 사생(師生) 관계라는 이유로 사적으로 인패(印牌)를 준 것은 명백히 사적인 정에 속하므로 그 직위를 박탈당했다.⁷⁾

사건의 경위와 결말은 다음과 같다. 명 순정 17년(1644, 청 세조 순치 원년), 명 왕조는 대순(大順) 농민군에 의해 무너졌고 이어 대순 정권도 청나라 군대에 의해 무너졌다. 그해 5월 남경에 남명(南明) 복왕(福王) 홍광제(弘光帝)가 세워졌고, 이듬해 순치 2년(1645) 봄, 함가는 불경을 청하기 위해 남경으로 가서 지인 고몽유(顧夢游)의 집에 묵었다. 얼마 안 가 청나라군이 남하하면서 홍광 왕조는 멸망하여 광동으로 가는 길이 막혀 남경에 남게 되었다. 남경에서 머무는 동안 함가는 명 왕조가 무너지는 대변혁의 과정에서 “사신(事臣)들의 죽음을 친히 목격하고서”⁸⁾ 비통한 심정으로 청 정부에 항쟁하다가 죽은 명대 제신(諸臣)들의 사적을 담은 개인적인 사서(史書) 『재변기』를 썼다.

그 후 순치 4년(1647), 부친 한일찬은 초무대학사 홍승주의 회시(會試) 방사(房師: 과거의 향시·회시의 시험관을 말함)였던 관계를 이용하여, 함가는 인패(印牌)를 취득하여 남경을 빠져나와 광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⁹⁾ 그런데 남경성

7) “招撫南方總督軍務大學士洪承疇給廣東游僧函可護身印牌，負經還里，爲江寧守門兵搜出福王答阮大鍼書并『再變紀』一冊，其中字迹有干我朝忌諱，承疇以師生之故，私給印牌，顯屬徇情，應革其職。” 『淸世祖實錄』 卷38，中華書局，1985.

8) “親見諸死事臣。” 顧夢游，「千山詩集序」，『千山詩集』，3쪽.

9) 홍승주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은 한일찬(韓日纘)이 신의 회시(會試) 방사(房師)였으므로 인패를 주었다. 臣因韓日纘是臣會試房師，送給印牌”라고 했고, 함가의 『재변기』에 대해 “시사에 간여하였는데도 그것을 소각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허물을 취한 것이다. 干預時事，

(南京城)을 나올 때 청나라 군대 강녕(江寧)의 수문병에게 검문을 받게 되었다. 불경을 담은 상자 안에서 복왕 홍광제가 완대월(阮大鍼)에게 보내는 편지와 『재변기』가 발각되었다.

『재변기』에는 명청교체기의 관료, 지식인들의 행동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었다. 예를 들면, 남경이 함락당한 후 예부상서 전종백(錢宗伯: 청초 문인 전겸익(錢謙益))은 절개를 잃고 청나라 군에 투항하는 행위를 보였다. 반면, 남명의 병부상서 사가법(史可法)과 형부상서 서고탁(書高倬)은 항청활동을 하다가 순절(殉節)하였다. 『재변기』는 전겸익에 대해 “백발의 종백 노인이 널리 교활한 일을 하였네.”라고 비판했고, 사가법과 서고탁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두 상서가 있어, 신의 절개가 당당히 남아있다.”¹⁰⁾라고 찬송하였다. 이러한 사례 등을 통해 청 정부는 함가와 『재변기』에는 항청복명의 생각이 들어있고 함가는 “시정(時政)에 간여한다.”고 보았다.

함가는 순치 4년(1647) 11월 강녕총관(江寧總管) 파산(巴山)에 의해 경사로 압송되어 형부(刑部)의 감옥에 갇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청 정부는 “도당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수백 번이나 고문을 했다. 하지만 함가는 혼자 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주리를 트는 형벌 속에서도 두 말 하지 않았다.”¹¹⁾ 결코 굴복하지 않으며 “수백 번이나 고문을 받으며 죽었다 다시 살아난 후, 계속해서 주리를 틀고 고문을 받아 피가 발가락까지 흘렀다.”¹²⁾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해준다. 결국, 이듬 해 순치 5년(1648) 4월 함가는 심양으로 유배가게 되었다. 이 사건은 청초의 첫 번째 문자옥이 되었고, 함가는 청초 문자옥으로 인해 가장 먼저 동북지

其不行焚段，自取愆尤。”라고 했고, 함가와 동행했던 불문 제자에 대해서는 “함께 가던 불문 제자 금납(金蠟) 등 4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與隨從之僧徒金蠟等四人無涉.”라고 했다. 清國史館, 『貳臣傳』卷3, 『千山詩集』附錄7, 『洪承疇傳』, 432쪽.

10) “白頭宗伯老，作事彌狡獪。”，“幸有兩尙書，臣節堂堂在。” 「函可的『再變記』和『千山詩集』, <https://wenku.baidu.com/view/d02595a2b0717fd5360cdca.html> 검색일: 2011年 9月 18日.

11) “疑有徒黨，拷略至數百。但云：‘某一入自爲’，夾木再折，無二語。” 函昆, 『千山剩人可和尚塔銘』, 『千山詩集』, 11쪽.

12) “拷掠數百，死而復蘇，夾木再折，血沒趾。” 錢海嶽, 『南明史』卷76 『函可傳』, 中華書局, 2006, 6448쪽.

역으로 유배된 시승(詩僧)이 되었다. 청초에 한족 지식인에 대한 사상통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합가는 심양에 도착한 후, 첫 인상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 “눈을 들어보니 성곽이 보인다. 사람들은 이를 옛 도읍이라고 한다. 소달구지는 여전히 여기저기 오가며 인가는 거의 폐허가 되었다.¹³⁾” 당시 심양은 청조의 배도(陪都)였지만 여전히 열악한 곳이었다. 합가는 그곳에서 12년의 유배생활을 했다.

합가가 유배가기 전, 남경에 머물고 있던 순치 3년(1646)에 청나라 군은 조주(潮州), 혜주(惠州)로 내려가 광주(廣州)를 함락하였고, 광둥지역의 반청 세력은 더욱 격렬했다. 순치 4년(1647) 7월 진자장(陳子壯), 장가옥(張家玉) 등 합가의 지인은 광둥 동관(東莞)에서 봉기를 일으켰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 합가의 한(韓)씨 가문은 참사를 당했다.¹⁴⁾ 합가는 시에서 “마을에 열 집 중 한 집도 남지 않았고, 온 가족이 비참한 재앙을 만났네.”¹⁵⁾라고 했듯이, 당시 광둥지역은 합가의 가족을 포함하여 거의 청군에 의해 희생되었다.

『승조월동유민록(勝朝粵東遺民錄)』에 합가의 가족사가 이렇게 실려 있다.

합가의 동생 종린(宗麟)·종록(宗騶)·종려(宗驪)는 저항하다 희생되었다. 숙부 일흠(日欽)과 사촌형 여담(如琰)과 조카 자견(子見)·자항(子亢)은 전쟁에서 사망했다. 과부가 된 누이는 성이 무너질 때 죽었고 여동생은 어머니를 구하다가 죽었고, 종록의 부인은 곡기를 끊어 죽었고, 종려의 부인은 칼날을 물고 죽었다. 이들의 중복들도 절의를 따라 함께 죽었다.¹⁶⁾

참사가 있는 지 3년 후, 순치 7년(1650)에 고향으로부터 부보를 받은 합가는

- 13) “開眼見城郭，人言是舊都。牛車仍雜沓，人屋半荒蕪。”「初至瀋陽」, 『千山詩集』卷5, 103쪽.
 14) 합가는 남동생 3명, 누나 2명, 여동생 3명으로 총 9남매였다. 명이 멸망한 순정 17년(1644) 전에 누나 1명과 여동생 2명이 먼저 죽었다. 사촌형 한리태(韓履泰)는 명이 망한 후 출가하여 승려(법명 합정[函靜])가 되었고 합가의 사형(師兄) 함시(函晁)의 제자가 되었다.
 15) “閭井十無一，舉家慘罹殃。”「秋思」, 『千山詩集』卷2, 24쪽.
 16) “其弟麟·騶·驪以抗節，叔父日欽，從兄如琰，從子子見·子亢以戰敗，寡姐以城陷，妹以救母，騶婦以不食，驪婦以飲刃，皆死。即僕從婢媵，亦多有視死如歸者。” 합가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屈大均 『廣東新語』卷12, 『千山詩集』附錄6, 「僧祖心詩」, 431쪽 참고.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다. 그 무렵에 지은「심양잡시이십수(瀋陽雜詩二十首)」(제17수)를 보자.

고향의 소식 기다린 지 몇 해나 되었던가. 막상 소식이 오니 참으로 두렵구나. 온 가족 수백 식구 중에 동생 한 명만 홀로 남았구나. 땅 속에서야 도리어 만날 텐데, 천하에서 뉘와 더불어 이웃이 될까. 저녁 바람에 귀뚜라미 소리 계속 이어지고, 목탁도 아픔을 머금고 있네.¹⁷⁾

대가족이 비참한 재앙을 맞아 동생 한종록 한 명만 살아남았다. 함가는 홀로 남은 그에게 “온 가족의 백골들을 네게 부탁한다.”¹⁸⁾고 말했지만, 그 후 한종록은 산속으로 은거했다가 청군에 투항한 황응걸(黃應傑)의 고발로 역시 죽었다.¹⁹⁾

함가가 “나의 두 줄기 눈물은 십 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²⁰⁾라고 하였듯이, 나라와 가족을 모두 잃은 그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을 것이다.

2) 유배지에서의 생활

동북의 유배지 가운데 심양은 당시 흑룡강 일대의 영고탑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황량한 유배지라는 동북의 지리적, 정치적 환경은 마찬가지였다. 영남(嶺南)지역 출신인 함가에게 요동지역은 더욱 황량하고 추운 곳이었다. “4, 5월인데도 봄을 알 수 없고, 6월인데도 강물 바닥까지 얼어 있다. 올해는 날씨가 조금 낫지만, 가을이 끝날 무렵 눈이 산사를 휘덮는다.”²¹⁾ 심지어는 “늙은 여우가 찾아와 짐을 노리고, 굶주린 호랑이는 담을 넘는다.”²²⁾라고 당시 유배지의 환경을 묘사했다. 이처럼 함가의 변세생활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빙설의 추위

17) “幾載望鄉信，音來卻畏眞。舉家數百口，一弟獨爲人。地下反相聚，天下熟與鄰？晚風連蟋蟀，木佛共含辛。”「瀋陽雜詩二十首」(其十七首)，『千山詩集』卷6，126쪽.

18) “白骨全家賴爾收。”「憶耳叔二首」(其一)，『千山詩集』卷10，201쪽.

19) 한종록 관련하여 薛虹，「函可和永天詩社」，32쪽 참고.

20) “我有兩行淚，十年不得乾。”「淚」，『千山詩集』卷3，39쪽.

21) “四月五月不知春，六月堅冰結河底。今年天氣稍沖和，秋盡雪飛到山寺。”「過北里讀『徂東集』」，『千山詩集』卷5，89쪽.

22) “老狐來瞰室，餓虎易過牆。”「瀋陽雜詩二十首」(其七)，『千山詩集』卷6，124쪽.

였을 것이다. 「밤에 내린 눈(夜雪)」과 「추운 밤에 지음(寒夜作)」을 보자.

침상엔 온통 물이 스며들어 축축하고 눈이 내린 날씨는 개일 생각이 없다. 가련한 나는 시름에 잠 못 이루고, 집집마다 소리 없는 정적만이 흐른다.²³⁾

햇빛은 땅에 떨어지고 썩썩 세찬 바람이 분다. 온 사방엔 황사가 불고 눈도 내린다. 한밤중에 눈이 그치자 추위에 살이 에인다. 흙으로 만든 침상은 얼음 같고 이불은 쇠같이 차다. 추위가 뺏속까지 스미고 입술도 덜덜 떨리고 살도 갈라진다. 혼백은 희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다. 누가 하늘의 문을 쪼개어 열어서 조금이나마 햇빛을 내리게 할 수 있을까?²⁴⁾

살을 에이는 추위와 열악한 변세의 환경이 꺾진하고 생생하게 전해진다.

추위도 그렇고 의식주 생활도 여의치 않았다. “다행히도 천 가구가 남아있어, 외로운 이 나 혼자만은 아니네.”²⁵⁾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탁발 결식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지인들의 도움으로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다. 「원단에 라마를 슬퍼하며 지은 두 수(元旦哭喇嘛二首)」의 소서(小序)에서 심양에 도착한 후의 당시 생활환경을 이렇게 묘사했다.

내가 처음 변세로 왔을 때 남탑(南塔)에서 결식하였다. 한 라마가 그것을 보고 ‘신사께서는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라고 놀라 말하면서 곧장 걸치고 있던 것을 내게 벗어주었다. 이때부터 옷과 모자를 계속해서 보내 주었다.²⁶⁾

요동지역에서 이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함가뿐 만은 아니었다. 「홍수(大雨)」는 당시 유배자들의 고통과 비참한 삶을 기록한 한 편의 역사시

23) “一榻渾如水，雪天未肯明。憐吾愁不寐，到戶寂無聲。……” 「夜雪」, 『千山詩集』 卷6, 114쪽.
 24) “日光墮地風烈烈，滿眼黃沙吹作雪。三更雪盡寒更切，泥狀如冰衾如鐵。骨戰脣搖膚寸裂，魂魄茫茫收不得。誰能直劈天門開，放出日光一點來?” 「寒夜作」, 『千山詩集』 卷5, 98쪽.
 25) “幸有千家在，何妨一鉢孤。” 「初至瀋陽」, 『千山詩集』 卷6, 103쪽.
 26) “余初出塞，乞食南塔，喇嘛見而驚曰：‘師胡爲乎來哉?’ 卽解身上所披覆余，自此衣帽贈貽不輟。” 「元旦哭喇嘛二首」, 『千山詩集』 卷13, 269쪽.

라 할 수 있다.

작년 가을 홍수로 물바다가 되어 물고기·자라·모래 벌레들이 침상 위로 올라왔다. 요궁(瑤宮)의 저택도 다 떠내려갔는데, 띠로 엮은 유배자의 초가집은 말해 무엇하랴. 죽은 자의 시체는 넘쳐나고 산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단지 천명이 남았건만 음식을 구할 수 없다. 높은 산을 힘겹게 올라가 풀뿌리를 캐어 먹으니, 이젠 얼굴색이 누런 흙빛을 띤다. 그래도 언뜻 보아 보리와 기장이 열추 자랐으니 당장 먹을 수는 없으나 희망은 보인다. 신은 어찌하여 계곡의 남을 것을 아까워하며, 계속 미친 듯이 비를 내리게 하는 걸까. 그릇은 뒤집히고 부엌은 잠기어 어쩔 도리 없고, 집집마다 빛은 보이지 않고 하늘이 두껍게 덮여있다. 누가 검을 뽑아 완고한 구름을 베고, 해를 받들어 머리 위에서 비추게 할 수 있을까. 유배자여! 유배자여! 이를 어찌할까, 인생사의 고난이 어찌 이리 심한가. 전쟁으로 인해 끊어진 고향과 나라만이 남았는데, 요해(遼海)에서 또 요동치는 풍파를 만났구나. 이 노승은 덕도 부족하고 명도 박하여, 누워서 독룡(毒龍)의 희롱을 받는 것 같다. 한밤중에 베개가 물 위로 떠오르고,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구나.²⁷⁾

유배자들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했다. 농사를 지어 수확하는 것이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열추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뜻밖에 홍수를 만난 것이다. 홍수로 인해 목숨을 잃어 그나마 천 명 정도만 생존했지만 옷도 먹을 것도 없고, 띠로 엮은 초가집마저도 무너져 집안은 온통 빗물과 벌레들로 들끓는다. ‘완운(頑雲)’은 단지 폭우와 홍수를 일으킨 구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배자들의 암담한 삶을 상징한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재앙을 생생하게 비유하고 있다. 전쟁으로 나라도 가족도 잃었고 게다가 유배까지 온 상황에서 이런 홍수까지 만났으니, 설상가상의 삶에서 그들에게 한 줄기 빛(먹고 사는 것만이라도)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을까.

27) “去年秋澇森茫茫，魚蟹沙蟲登我床。瑤宮巨室皆漂沒，何況流民茆札房。死者橫流生者泣，千口僅留不得食。努力高山挖草根，至今面帶黃泥色。眼看麥短黍差長，雖未入口心有望。上帝豈憂溝壑剩，其雨其雨乃復狂。翻盤沉窞不肯止，庭戶無光天翳。誰能拔劍斬頑雲？捧出日輪頭上置。流民流民奈若何，生世坎壈何其多！兵革遺餘鄉國絕，又見遼海鼓風波。老僧德薄命更鄙，偃臥若遭毒龍戲。夜半滾滾淨枕頭，不知是淚還是雨。”「大雨」，《千山詩集》卷5，91쪽.

이렇게 함가는 순치 5년(1648) 유배된 이후부터 순치 16년(1660)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 요동지역에서 12년을 보냈다. 순치 16년 11월, 함가는 본인이 '빙설의 땅(冰天雪窖)'이라고 부르던 심양에서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세상을 뜨면서 계(偈)를 남겼다.

쓸모없는 한 사람(剩人)을 세상에 보내주었는데, 이제 떠나면서 썩은 뼈 한 구만을 남긴다. 늘 지내면서 땀감을 허비하지도 않았고, 또 나그네의 삶이니 구덩이를 팔 필요도 없다. 맨몸으로 요하의 물결 속으로 옮겨가니, 단지 물이 흐르다 돌이 드러나길 바랄뿐이다.²⁸⁾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돌아갈 날을 고대했지만, 심양 금탑사(金塔寺)에서 지천명의 나이를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함가가 세상을 떠난 지 116년 이후 건륭 40년(1775), 건륭제는 『사고전서(四庫全書)』를 재 수정한다(續修)는 명령을 내렸다. '수(修)'에는 '금(禁)'의 의미도 일정 정도 내포하고 있었으니, 일종의 금서목록을 찾고 문자옥을 실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청대 화가 고기패(高其佩) 후손의 집에서 함가의 『천산시집』이 발견되자, 건륭은 함가가 머물렀던 절, 그를 위해 세운 비탑(碑塔) 및 그의 글 등을 모두 없애게 하고, 『성경통지(盛京通志)』에 실린 그의 사적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함가는 죽은 이후 또 한 번 문자옥의 역사적 세례를 받은 것이다.²⁹⁾

3. 함가의 시 창작 내용

함가의 작품집 『천산시집』은 순치 14년(1657) 함가의 법제(法弟) 진승(眞乘)이 광둥에서 심양까지 가서 수고(手稿) 형태로 가져왔다. 그 후 강희 42년(1703)에 『천산시집』이 초각(初刻)되었다. 창작 기간은 대개 순치 원년(1644)에서 순치

28) “發來一個剩人，死去一具醜骨，不費常住柴薪，又省行人挖窟，移向渾河波裏，赤骨律，只待水流石出！” 郝浴，「奉天遼陽千山剩人可禪師塔碑銘」，『千山詩集』，15쪽.

29) 薛虹，「函可和冰天詩社」，36쪽 참고.

16년(1659) 함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이다. 대체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향정활동을 하던 지인들에 대한 추도, 고국에 대한 절개, 인간적 고독과 노승으로서의 정신적 경계, 변세의 경물서정 등을 표현하였다.

1)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고독

유민이자 유배자인 함가는 고향을 잃은 심정과 자신의 처지를 자주 표현하였다. 「눈물(淚)」을 보자.

나의 두 줄기 눈물은 십 년 내내 마르지 않는다. 하늘을 향해 쏟아내니
하늘도 문을 닫고, 땅에다 뿌리니 땅속의 뼈들도 한기를 느낀다. 동해로
쏟아내어 조류를 따라 호문(虎門)으로 흘러가는 게 나오리라.³⁰⁾

눈물이 오랫동안 마르지 않아 위로는 하늘의 문마저 닫히고 아래로는 땅속의 뼈들도 한기를 느낀다고 한 표현은 오랜 세월 자신의 마음을 짓눌러 왔던 비통함을 의미한다. 그러자 ‘동해를 향해 쏟으면 조류를 따라 호문(虎門: 고향 박라(博羅) 부근)으로 흘러 들어가겠지’라며 심리적 안식처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하늘도 땅도 거부하는 곳에서 자신을 품어 줄 곳은 고향밖에 없으니, 그 간절함은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시인의 그리움은 무엇보다도 가족과 고국에 대한 상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나부를 생각하며(懷羅浮)」와 「이숙을 그리워하며 두 수를 지음(憶耳叔二首)」(첫째 수)를 보자.

철교 서쪽 편은 바로 우리 집, 뒤돌아보니 첩첩이 황색의 구름으로 가
려져 있네. 사백 개의 봉우리마다 모두 꿈이 있고, 마치 피리 속에서 매화
를 보는 듯하네.³¹⁾

30) “我有兩行淚，十年不得乾。灑天天戶閉，灑地地骨寒。不如灑東海，隨潮到虎門。”「淚」，《千山詩集》卷3, 39쪽. 호문(虎門): 현재 광둥성 동관(東莞)시의 서남쪽, 주강(珠江) 어귀에 위치한 호문진(虎門鎮)을 말함.

31) “鐵橋西畔即吾家，回首黃雲萬壘遮。西百峰峰皆有夢，宛從笛裏見梅花。”「懷羅浮」，《千山詩集》

다년간의 지병을 아직 고치지도 못했는데, 홀로 남은 외로움을 또 어떻게 견딜까. 만 리길 황사 속의 내 생각을 멈추고, 온 가족의 백골을 네가 거둬주길 바란다. 낡은 집에 남겨둔 작품들은 물고기 배 속을 채우고, 텅 빈 하늘가로 떨어지는 달빛 속에 기러기 소리 슬프다. 상봉은 아마도 다음 생에서나 가능하겠지. 멀리 영원(鶴原: 척령[鶴鶴])을 바라보니 그냥 눈물이 흐른다.³²⁾

첩첩이 구름 속에 가려진 철교 서편은 시인의 집, 그토록 가족과 고향이 보고 싶었던 것은 광동에서 항청운동을 하다가 다 죽고 혼자 남은 동생 한중록(자 이숙[耳叔])이 더욱 걱정이 돼서 이기도 하다. 그러나 갈 수만 있다면 집으로 가는 그 길 위의 봉우리는 모두가 꿈이고, 그것은 고향의 매화를 보게 하는 상상 혹은 희망을 보게 한다. '매화[梅花]', '기러기[月雁]', '영원[鶴原]'은 '고국', '고향', '가족'을 상징한다. 하지만 갈 곳은 아득하고 막막한 구름[黃雲]으로 막혀있고, 몸은 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느니, 텅 빈 하늘가의 지는 달빛 아래서 꿈만 꿀 뿐이다. 하지만 그 '꿈(夢)'도 다음 생[他生]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다소 체념조의 애잔함을 보인다.

「갑신 선날 그믐날 밤 남안에 거하면서(甲申歲除寓南安)」를 더 보자.

매화령(梅花嶺) 아래 작은 개울가에서 추운 겨울 외로운 고승은 홀로 눈물을 흘린다. 승복의 아래 솔기에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실 땀이 아직 남아 있고, 땀대엔 늘 미인편(美人篇)이 펼쳐있다. 선황(先皇)의 세월은 오늘 저녁 잔상으로 남아 있고, 고국의 풍광은 지난해를 생각해 한다. 향불은 싸늘하고 밤은 깊은데 소나무불이 꺼지니, 곳곳에선 이제부터 봉화가 조용하다.³³⁾

卷15, 305쪽.

- 32) “抱病多年苦未瘳，那堪癸獨一身留。黃沙萬里休余念，白骨全家賴爾收。舊閣遺編魚腹飽，空天落月雁聲愁。相逢恐是他生事，極目鶴原淚自流。”『憶耳叔二首』(其一)，『千山詩集』卷10, 201쪽. 영원(鶴原): “春令在原，兄弟急難. 척령이 들관에 있으니 형제가 위난하네.”(『시경·소아·상제(詩經·小雅·常棣)』). 령원(春令)은 척령(鶴鶴)을 말함. 정현(鄭玄)은 이 시에 대해 “척령은 물새인데 지금 들관에 있으니 늘 살던 곳을 잃어서 날면서 우는 것이다. 그 동류를 찾는 것은 본능이다.”라고 해석했다. 영원(鶴原)은 형제우애를 가리킴.
- 33) “梅花嶺下小溪邊，寒盡孤僧淚獨漣。衲底尚存慈母線，擔頭時展美人篇。先皇歲月餘今夕，故國風光憶去年。香冷夜深松火息，萬方從此靜烽煙。”『甲申歲除寓南安』，『千山詩集』卷9, 172쪽.

‘갑신(甲申)’은 송정 17년(1644) 명 왕조가 멸망한 해이다. 함기는 금릉(金陵)으로 가기 위해 나부(羅浮: 광둥성 혜주[惠州] 부근의 나부산)에서 출발하여 홀로 남안(南安: 복건 천주부[泉州府]에 속함)을 지나고 있었다.³⁴⁾ 마침 설달그림이라 짐집마다 가족들이 모였다. 하지만 외로운 고승은 ‘자애로운 어머니가 남긴 실땀’을 바라보고 또한 굴원의 미인을 음영한다.³⁵⁾ 남방(초)의 굴원과 동북의 고승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고국을 잃고 유배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외지로 떠나는 아들을 위해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주신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면서 고향의 품을 그리워한다. 시 전체에서 ‘梅花’, ‘慈母’, ‘先皇’, ‘美人’, ‘故國’ 등으로 고국과 고향의 그리움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워만 하고 돌아갈 수 없는 자신의 신세를 ‘마지막 잎새’에 비유하기도 했다. 「잎사귀 하나를 읊으며(一葉吟)」를 보자.

여러 잎사귀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한 잎만이 가지에 남아 있네. 스스로 아침저녁으로 붙어있지만 옆에 친구가 없으니 어찌할까? 해는 멀어 비추지 못하고 서리와 눈이 가지 끝을 덮고 있네. 큰 가지도 꺾이는데 그 잎 어찌 걱정이 없을까?³⁶⁾

‘하나의 잎[一葉]’은 자신을, ‘많은 잎[衆葉]’은 친구나 가족을, ‘큰 가지[大枝]’는 멸망한 명 왕조를, ‘그 잎[爾葉]’은 자신을 포함한 유배자, 유민을 은유적으로 비유했다. ‘낙엽’을 제재로 하여 나라의 멸망과 가족의 죽음, 자신의 인생 역정과

매화령: 강소성 양주(揚州) 광저문(廣儲門) 밖에 위치. 명 만력 주수(州守) 오수(吳秀)가 성호(城濠)를 준설하여 그곳에 흙을 쌓아 구릉을 만들고 매화를 심었다 하여 매화령이라 한다. 명말에 청군이 양주를 파괴하면서 사가법(史可法)이 난으로 죽었고 가족들이 이곳에 그의 의관을 묻었다. 남안(南安): 옛날 복건 천주부(泉州府) 남안현(南安縣)을 말함, 현 복건성 동남 연해에 위치.

34) 秦嘉, 『函可千山詩集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22쪽.

35) “자애로운 어머니 손안의 실은 먼 곳으로 떠날 자식의 옷이라네. 떠나기 전에 혹여 늦게라도 돌아올까 봐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하네. 누가 말할 수 있을까. 한 마디의 작은 풀이 따뜻한 봄날 같은 어머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다고. 慈母手中線, 遊子身上衣. 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誰言寸草心, 報得三春暉.” 孟郊, 「游子吟」.

36) “衆葉落地死, 一葉枝上留. 雖自保朝夕, 其奈無朋儔. 天日遠不照, 霜雪臨其頭. 大枝且摧折, 爾葉能無憂?” 「一葉吟」, 『千山詩集』卷3, 59쪽.

그로 인한 감정을 ‘衆葉→一葉’, ‘大枝→爾葉’으로 층차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마지막 한 잎[一葉]’으로 비유하면서 감정을 구체화 한다. 끝으로 함께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無朋儔] 심지어 햇빛조차 없이 가지 끝에 내린 서리와 눈의 무게를 견디며 언제 떨어질지 몰라 걱정[憂]한다. 이처럼 시대의 무게와 인간적 고독감을 홀로 감내하면서 생의 끝애와 있는 시인의 막막한 마음과 비통한 정서가 느껴진다. 더욱 슬픈 것은 많은 가족과 벗들이 나라의 대의를 위해 희생된 상황[死]에서 자신만이 홀로 살고[留]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처럼 ‘衆葉’과 ‘一葉’, ‘天日’과 ‘霜雪’, ‘大枝’와 ‘爾葉’, ‘死’와 ‘留’ 등의 대비적 시어를 통해 비유와 상징수법을 활용하여 나와 사물이 하나 되는 정경융합(情景融合)의 경지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대비를 통해 감정이 순차적으로 구체화되고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점층적 경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인의 고독한 처지를 더욱 증감시키고 있다.

하지만 합가의 감정이 고독과 그리움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더러는 강한 의지, 체념, 깨달음 등의 경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백납매화(白蠟梅花)」를 보자.

십 년 동안 기약하던 고향을 멀리하였으니, 누가 절새(絶塞)에서 이 지를 잡으리오. 강한 뼈대가 있으면 빙설을 두려워하지 않고, 향이 없으면 벌이나 나비를 현혹할 수 없다네. 혼은 만 리 길을 표류하니 환상을 불러 오고, 한밤중의 꾸는 꿈을 담은 알겠지. 가장 좋은 것은 피고 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 누대 위의 외로운 피리 소리만이 멀리 퍼져나간다.³⁷⁾

이 시 제목의 소서(小序)에서 “시자(侍者)가 백납(白蠟)으로 매화를 만들어 주었는데 색깔과 분위기가 너무 닮았다.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자니, 마치 고향에 있는 것 같아서 그 느낌을 글로 남긴다.”³⁸⁾라고 했다. 납매화는 겨울에 눈이 녹지

37) “十年負卻舊山期，絕塞誰拈此一枝？有骨莫愁冰雪沁，無香休惹蜂蝶疑。魂飄萬里村俱幻，夢到三更月共知。最好不關開落事，樓頭玉笛漫孤吹。”「白蠟梅花」，《千山詩集》卷11，221쪽.

38) “侍者以白臘爲梅花，作供，色韻酷肖。晨夕對之，不啻身在故鄉，賦此志感。”「白蠟梅花」，《千山詩集》卷11，221쪽.

않을 때 피는 첫 꽃이라 해서 납매화라 한다. 비록 오랜 시간 고향(舊山)을 등지고 변세에서 살아가지만 납매화를 보고 '강한 뼈대가 있으면 빙설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잘 견뎌내고픈 생의 의지를 느낀다. 하지만 그리움은 일상이 되어 피하기 어렵고, 단지 '꿈속의 달'만이 알아줄 뿐이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세상사에 관심을 두지 말자'면서 체념조의 깨달음을 말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길게 '외로운 피리(玉笛)'만 불 뿐이라며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상의 시에서 보았듯이, '영원(鶴原)', '납매화(蠟梅花)', '호문(虎門)', '자모(慈母)', '기러기(月雁)', '구산(舊山)', '달(月)' 등을 통해 고향, 가족을 비유하였고, '막막한 구름(黃雲)', '떠도는 영혼(魂飄)', '외로운 승려(孤僧)', '잎사귀 하나(一葉)' 등은 홀로 된 자신을 상징하였다. 이처럼 비유와 상징의 시어를 활용하여 시인의 심정을 투영하면서 개인의 고독감과 가족,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2) 고국에 대한 절개와 추도

고향, 가족 등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외에도 함가의 시에는 마치 소나무나 대나무처럼 곧고 강직하여 세상사에 굴하지 않는 분개의 심정도 잘 드러난다. 주로 청정권에 대한 불만과 타협하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사서(史書) 『재변기』를 쓰고, 그 일로 인해 심문을 받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았던 절개와 의지가 그 예이기도 하다.

「심성에서의 일(瀋城卽事)」과 「신묘일에 보제에서 머물며 쓴 팔가(辛卯寓普濟作八歌)」(일곱째 수)를 보자.

살고 죽는 것은 지금껏 늘 언제나 은혜였고, 고향을 떠나 십 년의 유랑
에 외로운 누더기 승복만 남았네. 줄지어 다니는 기러기들은 자주 화살에
맞고, 금으로 빛은 사람은 스스로 말이 없네.....³⁹⁾

39) “生殺由來總是恩，流離十載孤衲存。雁飛成字頻遭射，金鑄爲人自不言……” 「瀋城卽事」, 『千山詩集』卷12, 252쪽.

지난 왕조에 시달린 누더기 옷은 십년 동안 함께 하며 떠나지 않았네.
부서진 몸과 마음은 온전한 데 하나 없고, 이제 핏자국으로 물든 옷소매만
이 남아있네. 누구는 새것으로 헌것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여름과
겨울을 걸쳐야 하니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누더기 옷아, 누더기 옷아!
너만은 슬퍼하지 마라. 비록 너덜너덜하지만 관복보다 나으니, 살아서는
모래와 바람을 막아주고 죽어서는 시체를 덮는구나.⁴⁰⁾

백성들의 살고 죽는 문제는 예부터 늘 임금의 은혜였다. 하지만 지금 그 은혜는 시인에게 외로운 누더기 옷만 남겨주었다. 자신 외에도 다른 유배자(‘雁飛’)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지만, 막상 은혜를 주는 임금(‘金鑄’)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고통은 온전히 피해자(유배자, 백성)의 몫이고 가해자는 시대와 권력으로 인해 무감해진 것이다.

후자의 시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흥망성쇠를 논하고 그에 대한 시인의 강렬한 의지와 절개를 보여준다. 누더기(‘衲衣’)는 망한 나라와 남겨진 유민, 폐허가 된 고향과 순절한 가족 및 유배된 자신을 비유하고 있다. 청 정부에 의해 너덜너덜 만신창이(碎)가 되어 몸과 마음은 시대의 핏자국(血)으로 얼룩져있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죽은 자는 슬프지만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의 기쁨보다 더 값진 것이다(破爛勝牙絳). 그래서 ‘새것으로 헌것을 바꾼다.’는 말을 무시하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불이(不二)’의 의지와 절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함가는 과감하게 시정을 위해 간언을 하거나 항청운동을 하던 지인들의 절개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여수구(黎遂球: 1602-1646, 자 미주[美周])와 이인(李裨: 1598-1656, 자 용곤[龍袞])의 순절과 간언에 대해 높이 찬송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죽음을 추도하였다. 「멀리서 미주를 슬퍼하며(遙哭美周)」와 「이급간을 슬퍼하며(哭李給諫)」를 보자.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친 기개는 전에 없었고, 공수(貢水)가 범람하니
뜨거운 피가 튀어 오른다. 보살은 막다른 길을 만나 말고삐를 돌리고, 효

40) “辛苦前朝老衲衣, 十年與爾不相離。骨殘心碎無完肌, 至今襟袖血跡遺。誰云新者可代故, 何忍拋撇冬夏披。衲兮衲兮汝勿悲, 雖然破爛勝牙絳, 生御風沙死裹尸。”「辛卯寓普濟作八歌」(其七), 『千山詩集』卷5, 92쪽.

렴(孝廉)은 배가 뒤집혀 용천(龍泉)을 잃었네. 집에 홀로 남은 노모는 서쪽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꿈은 변세의 연기와 함께 고승을 휘감고 있네. 절개의 문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연꽃 위로 다음 생의 인연을 기약할 뿐이네.⁴¹⁾

산속의 시름이 채 가지지도 않았는데 말을 타며 외로운 충신을 슬퍼한다. 백발은 강물을 따라 흐르고 청운은 변세의 티끌을 쫓는다. 역사는 충정과 분노의 상주문을 남기고 하늘은 덕망이 높은 충신을 잃었네. 다행히도 두꺼운 비단으로 만든 긴 솜옷이 있어 해마다 새로운 눈물을 적신다.⁴²⁾

여수구는 광동 번우(番禺) 출신의 문인이다. 청나라군이 남하할 때 진자장, 장가옥 등과 항청활동을 벌이다가 광주의 전투에서 온 가족이 전사했다.⁴³⁾ 감주(贛州)를 지키려던 그의 기개는 뜨거운 피가 되어 순절했다(貢水波漫熱血濺). 그들의 절개와 문장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합가 자신(菩薩)은 『재변기』로 인해 유배되었고, 명대 유민(孝廉)들도 순절하여 결국 나라(龍泉)를 잃었다. 그들의 꿈은 슬픈 노모만을 남기고 자신의 꿈은 변세의 연기로 남았지만, 그래도 모두의 '꿈'을 연꽃 위로 다시 피어오를 다음 생에 맡기면서 순절한 충신에 대한 추도를 마친다.

이인은 산둥 고밀(高密) 출신이다. 예과급사중(禮科給事中), 병과급사중(兵科

41) “一身許國氣無前，貢水波漫熱血濺。菩薩道窮販馬革，孝廉船覆失龍泉。家餘老母西方淚，夢繞孤僧北塞煙。節義文章渾泡影，蓮須重結後生緣。”『遙哭美周』，『千山詩集』卷9，185쪽. 공수(貢水): 강서성 석성현(石城縣)에서 발원하여 그 일대를 흐르는 강. 효렴(孝廉): 명칭 시기 거인(舉人)을 말함. 용천(龍泉): 보검의 일종으로 용연(龍淵)이라고도 함. 황실을 위해 주조한 보검을 의미함.

42) “山中愁未了，走馬哭孤臣。白髮隨江水，青雲逐塞塵。史留忠憤疏，天喪老成人。幸有緜袍在，年年漬淚新。”『哭李給諫』，『千山詩集』卷7，142쪽. 급간(給諫): 청대의 육과(六科) 급사중을 말하며 주로 간언을 담당했음. 제포(緜袍): 두꺼운 비단으로 만든 긴 솜옷. 고국, 옛 우정을 의미하며 또는 그것을 그리워함.

43) 여수구는 진자장은 장가옥(張家玉), 진방언(陳邦彦)과 함께 동관(東莞) 구강향(九江鄉)에서 조경(肇慶)의 계왕(桂王) 주유량(朱由榔)의 영력(永曆) 정권에 호응했다. 합가와 친한 친구이며 진자장을 스승처럼 대했다. 진자장(陳子壯): 자 집생(集生), 호 추도(秋濤), 광동 남해(南海) 출생)은 천계, 승정 연간에 강남일대의 동림(東林)에 대한 배척이 심해지자 광동에서 남원시사(南園詩社)를 설립하였다. 합가가 유배된 후 순치7년(1650) 심양에서 좌무태(左懋泰) 등과 함께 병천시사를 설립하여 동림과 남원시사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했다. 합가는 진자장에게 전하는 『遙哭秋濤』(『千山詩集』卷9, 184쪽 참고)를 썼다.

給事中)을 역임했다. 순치 12년(1655) 도인법(逃人法)의 폐단과 만(滿)·한(漢)의 차별대우에 대해 간언을 했다. “황제는 중국의 주인이시며 천하를 한 집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꼭 ‘동인’, ‘구인’으로 구분하셔서 사람들이 이미 둘로 나누어졌습니다.”⁴⁴⁾라고 상소했다. 이 때문에 상양보로 유배되었다가 그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이 두 수는 ‘꿈(夢)’과 ‘청운(靑雲)’을 매개어로 하여 충정한 절개를 보인 여수구와 이인을 추도하고 있다. 그들의 꿈과 희망은 변세의 연기(塞煙), 변방의 티끌(塞塵), 물거품(泡影)으로 남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해마다 고국, 열사(縑袍)를 기억한다고 다짐하고, 다음 생(後生緣)을 기약하면서 연꽃(蓮) 위로 피어오르기를 희망한다. 꿈과 희망의 어의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꿈은 보다 성취 결과에 치중한 명사적 의미라면, 희망은 주로 미래 행위에 치중한 동사적 의미이다. 즉 ‘바라고(希)’ 또 ‘바라는(望)’ 것이다. 그래서 함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꿈을 또 꾸는 것이다. 멈추지 않는 바람이 존재하는 한, 해마다 새로운 눈물(新淚)을 흘릴지라도 그 희망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을 그 꿈을 계속 꾸고 있는 함가의 마음이 더 처연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3) 지인에 대한 감회와 슬픔

황폐한 요동지역으로 향하는 유배자의 이별은 더욱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함가는 먼 곳에서 자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했다. 「산속에서 친구를 생각하며 두 수를 짓다(山中思友二首)」를 보자.

지기는 본래부터 적었는데 깊은 눈으로 덮인 변세는 말할 것도 없겠지.
매번 함께 웃을 때마다 절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짐을 느꼈다네. 오랫동안
함께할 때는 별 탈 없더니 처음으로 헤어지자니 슬픔을 금할 길 없네. 이
추운 밤을 어찌할까, 홀로 외로운 봉우리에 기대어 본다.

일찍 만나지 못한 것도 한스러운 데 헤어지자니 마음이 더욱 아프다.

44) “皇上爲中國主，其視天下皆爲一家，必別爲之名曰東人，又曰舊人，人已歧而二之矣。”『清史稿』卷244, 『李綱傳』.

고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쌓여가니 친구에 대한 보고품도 더욱 깊어간다. 깊은 산이라 구름은 늘 고요하고 추운 날씨에 해가 빨리 진다. 홀로 노래해도 별도리가 없으니, 종경(鍾磬) 소리는 절로 음을 이룬다.⁴⁵⁾

좁고 외로운 수소에서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앞서 2장의 가족사에서 보았듯이, 함가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향의 지인이나 유명 문인들을 항청 운동에서 잃었다. 그러므로 함가의 슬픔은 단지 멀리 떨어진 고향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함가는 승정 12년(1639)에 불문에 귀의했다. 심양으로 유배된 후에도 심양, 상양보, 천산(千山) 등의 보제(普濟)·광자(廣慈)·대녕(大寧)의 사원에서 불법을 선양했다.⁴⁶⁾ 승려들과의 교류도 이어갔다. 그는 유배 문인들과 넓게 교제하면서 “처음에는 절의와 문장으로 서로 양모하고 중시하다가, 후에 서로 이끌어 법문의 교류가 되기도 했다.”⁴⁷⁾ 대표적으로 함가와 함께 도독(道獨) 스님을 모신 법제(法弟) 함기(函機: 자 미양[未央])와 법형(法兄) 함시(函晞: 자 여중[麗中])와의 교류가 많았으며, 이들은 모두 동향의 광둥 번우(番禺) 사람이다.⁴⁸⁾ 「양미양이 광계생에게 준 시를 읽고 감회가 일어 씀(讀梁未央贈霍階生詩有感用原韻)」과 「여중 법형을 그리워하며(憶麗中法兄)」를 보자.

태복(太仆)이 목숨을 바치던 날, 기러기는 줄을 지어 함께 날아갔네.
연꽃 핀 연못에 마음은 깨끗하고, 금궤(金櫃)에는 이름이 남겨있네. 오령(五嶺)에는 신의 절개가 드러나고, 천년의 시간은 의로운 도리를 중시했

45) “知己從來少，況當塞雪深。每同開口笑，遂覺緩愁心。長聚亦無事，初離便不禁。如何此寒夜，獨自臥孤岑。” “相見已恨晚，更添離別心。幾多鄉國思，翻向友朋深。山古雲常寂，天寒日易沉。獨吟渾莫奈，鍾磬自成音。” 「山中思友二首」, 『千山詩集』 卷7, 138쪽.

46) 함가의 명성이 갈수록 높아져서 “따르는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들이 강물을 힘차게 오르는 것 같았으며, 趨之者如河魚怒上.” 그를 “종교를 개척한 비조(鼻祖)로 받들었다. 奉爲開宗鼻祖.” 郝浴, 「奉天遼陽千山剩人可禪師塔碑銘」, 『千山詩集』, 15-16쪽.

47) “始以節義文章相慕重，後皆引爲法交.” 陳伯陶 著·謝創志 標點, 『勝朝粵東遺民錄』, 樂水園印行, 2003.

48) 함기의 속명은 양조종(梁朝鍾)이며, 함시의 속명은 증기신(曾起莘)이다. 함시는 그의 제자 아우(阿宇)를 먼 동북의 심양으로 보내 함가를 문안하기도 했고, 정사(淨社)를 조직하여 명대 유민들과 함께 결사활동을 했다.

네. 홀로 살아남아 송구한 여생을 보내니, 눈바람 속에서 그리움을 잊기 어렵네.⁴⁹⁾

오랜 이별에 그리움과 기억은 아련하고, 외로운 기러기 한 마리가 눈물을 흘린다. 극심한 난세에 슬픈 가족만 남았고, 깊은 은혜를 받았던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네. 소식은 멀리 변새까지 통할 수가 없고, 봉화는 선방까지 이르렀겠지? 옛 지인들은 다들 새로운 귀신이 되었고, 이 몸 남았어도 이미 창자는 끊어져 있네.⁵⁰⁾

함기는 순치 3년(1646) 소관생(蘇觀生)과 함께 광주에서 소무(邵武) 정권을 세웠지만, 청나라군이 광주를 함락하면서 외삼촌 적자형(霍子衡)을 잃었다. 이처럼 항청지사의 절개와 의로움은 시(千秋), 공(五嶺)을 초월하여 역사에 남을 일(金匱)이지만, 모두 기러기(雁一行)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살아졌다. 남겨진 것은 그들을 향한 함가의 그리움(思)뿐이다.

함가가 그토록 슬퍼하는 것은 난을 당해 모두 죽었는데 자신은 죽지 않은 것(我在, 存已)이며, 일종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부끄러움(愧)이다. 그래서 “내가 타향에서 숨어 있으니 살아도 죽은 것이라네.”⁵¹⁾라고 하면서, 나라를 위해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것에 대한 고통을 느꼈다. 항청으로 순절한 동향의 지인이자 지사들을 위해 시대적 아픔을 느낀 것이다.

함가의 영남에 있던 친구, 지사, 종친, 승려들에게 보낸 시들을 통해 유민으로서의 충정과 비장한 정서가 묻어난다. 본인도 혼란한 시대(亂極)에서 ‘홀로 송구한 여생을 보내는’ 슬픈 유배자(孤雁)이지만 살아남아 있어서 부끄럽다고 말한 것은, 절개와 충정을 보인 지사와 지인의 절개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더

49) “太仆捐軀日, 相隨雁一行. 蓮池心骨淨, 金櫃姓名藏. 五嶺明臣節, 千秋重義方. 餘生愧我在, 風雪思難忘.” 「讀梁未央贈霍階生詩有感用原韻」, 『千山詩集』 卷7, 153쪽. 광계생(霍階生)은 광자형(霍子衡)을 가리킴. 태복(太仆): 황제의 어거를 몰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직. 금궤(金櫃): 동을 만든 상자로서 문헌과 문물을 보관하여 오래 보존한다는 뜻. 오령(五嶺): 강서, 호남 일대의 장강 유역과 광둥, 광서 일대의 주장 유역에 있는 월성령(越城嶺)·도방령(都龐嶺)·맹저령(萌渚嶺)·기전령(騎田嶺)·대유령(大庾嶺)을 말함.

50) “闊別何年思杳茫, 一聲孤雁淚淋浪. 想當亂極悲親在, 共愛恩深見國亡. 書信竟無通遠塞, 烽煙曾否到禪房? 舊時相識多新鬼, 只恐身存已斷腸.” 「憶麗中法兄」, 『千山詩集』 卷10, 200쪽.

51) “我竄異方生亦死.” 「遙哭巨源」, 『千山詩集』 卷9, 186쪽.

욱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함가는 유민이자 유배자이며 시승의 신분으로 시대의 아픔과 개인의 고통으로 표현하였다.

4) 시승의 정신적 경계

함가가 요동지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자연 경물은 눈일 것이다. 그는 눈의 순백과 순결을 사랑하며 자신을 눈에 비유하곤 했다. 「산 위의 눈을 노래하며(山雪歌)」를 보자.

우뚝하게 솟은 산에 눈이 펄펄 내린다. 저무는 해는 바람을 따라 계곡의 돌 위에 머물고, 저녁의 추위는 달과 함께 은사의 동굴 문을 비춘다. 깊고 아득한 산에 하얀 눈이 가득하다. 눈이 산머리에 있으니 눈이 더욱 높아 보이고, 산머리에 눈이 있으니 산이 더욱 높아 보인다. 노승은 눈도 사랑하고 산도 사랑하며, 해마다 산속에서 스스로 정좌수도도 한다. 겨울이 되면 반드시 눈을 보고, 눈을 볼 때마다 얼굴이 환해진다. 내 마음이 눈과 얼마나 닮았던가, 길이 텅 빈 산에서 눈을 안고 죽기를 바란다. 설령 뼈가 얼음이 된다 해도, 혼은 응당 녹아 물이 될 터이다. 나는 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이 없지만, 눈은 나를 보며 정을 보낸다. ……깊은 산 속 황량한 산사에 종일토록 아무도 없이 너와 나만 있기를 바랄뿐이다. 다만 봄이 오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외로움이 그때부터 시작될까 염려된다. 하지만 이때가 되면 천지는 매우 아득히 어두워져, 산승이 노래를 부르면 산속의 눈이 들을 터이다.⁵²⁾

높은 산에서 눈이 펄펄 내린다. 바람을 안은 석양은 계곡의 돌 위를 비추고 차가운 달빛은 은사의 거처를 비추고 있다. 적막하고 쓸쓸한 분위기이지만 “노승은 눈도 사랑하고 산도 사랑하며, 그런 산속에서 정좌수도도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눈의 속성처럼 희고 순정하다고 비유한다. 그래서 “뼈가 얼음이 되고 혼이 녹아

52) “山巍巍，雪霏霏。日夕隨風棲澗石，夜寒和月照巖扉。山杳杳，雪皎皎。雪在山頭雪更高，山頭有雪山逾老。老僧愛雪兼愛山，歲歲山中自掩關。每到冬來必見雪，每到見雪必開顏。我心與雪何相似，長欲空山抱雪死。縱令骨化定爲冰，直至魂銷應作水，我常對雪寂無聲，雪來見我如有情。……但願深山荒寺裏，盡日無人吾與爾。只恐春來爾不禁，寂寂相思從此始。是時天地苦冥冥，山僧作歌山雪聽。”「山雪歌」，《千山詩集》卷5，100-101쪽.

물이 되어” 눈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고요하게 있는 나에게 눈이 정을 보내기 때문이다.

한편, 상반되는 정서의 반복을 보여준다. 깊은 산 속 산사에서 종일토록 아무도 없이 너와 나만 함께하고 싶다고 하면서, 봄이 되면 외로움이 찾아올까 염려가 된다고 하는 표현은 심리적 모순을 보여준다. 하지만 결국 “산승(山僧)이 노래 부르면 산속의 눈이 들을 것”이라면서 눈을 청중으로 삼아 사물(눈)과 한 몸이 됨을 보여준다. ‘나(主)’와 ‘물(客)’을 결합한 물아일체의 경계로 승화하였다. 왕국유(王國維)가 말한 “나를 중심으로 사물을 관찰하면 만물이 나의 색채를 입게 되는 것이다.”⁵³⁾라는 시적 효과를 거두었다. 눈은 본래 정이 없고 사람은 정이 있다. 그런데 “나는 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이 없지만, 눈은 나를 보고 참으로 정을 보내네.”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역할을 체환(替換)함으로써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 주었다. 외롭기는 시인도 눈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눈이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표현은 시인의 외로움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눈과 나를 연결하여 순정한 시승의 정신적 경계와 고된 유배 생활의 외로움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잘 어우러지게 연출하였다.

또 「검은 눈(黑雪)」을 보자

관동에는 검은 눈이 내린다고 하더니 지금에서야 그 형체를 보게 되었는데. 푸른 하늘엔 가벼운 구름도 없고 하얀 해는 광명을 다툰다. 토박이들은 옛일을 가리키며 흑설은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라고 한다. 하얀 것은 본디 눈의 본성이니 시간에 따라 특별한 호칭은 없다네. 그 색이 조금 달라서 흑설이라 명명하는 것일 뿐이네. 눈은 이처럼 응당 참되게 하얀 것이거늘, 가장 위험한 것은 인간의 마음일 뿐이네.⁵⁴⁾

토박이들은 흑설이 불길하다고 하지만 시인의 생각은 다르다. 눈의 순백은 눈

53) “以我觀物，則萬物皆着我之色彩。”徐潔，『函可詩歌研究』，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6，21쪽 재인용.

54) “關東有黑雪，今乃睹其形。青天無纖雲，皎日爭光明。土人指往事，曰此非佳征。清白本其性，遠近無殊稱。厥色稍不如，遂加以黑名。雪爾宜白慎，最險是人情。”「黑雪」，『千山詩集』卷4，71-72쪽.

의 본성이기 때문에 검게 오염되어도 그 본성은 여전히 순결하다는 것이다. 변한 것은 눈(雪)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려진 눈(眼)과 마음이라는 것이다. 「검은 눈」의 흑설은 험악한 세태와 쉽게 반복하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이 두 수의 작품은 동일한 눈을 제재로 하였지만 전자에서는 상서로운 순정함을 후자는 세속적인 오염을 표현했다. ‘물[객]’과 ‘나[주]’, ‘탈속’과 ‘세속’의 경계를 오가는 방식으로 시승 함가의 불교적 색채와 정신적 경계 및 철리(哲理)를 보여주고 있다.

눈 외에도 국화에 대한 시도 인상적이다. 특히 「시든 국화(殘菊)」를 주제로 한 시가 여러 편 있다. 눈에 대한 인식도 그러했듯이, 국화꽃이 필 때는 너도나도 감상하지만 시들면 모두가 버리는 습성을 대조함으로써 경부(輕浮)한 세태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시든 국화」, 「시든 국화 두 수」를 보자.

국화가 피면 사람들은 모두 감상을 하지만 시들면 다 떠나간다. 예전엔 무심코 지나쳤는데 오늘은 마음속으로 깊은 감회가 인다. 된서리가 그 뿌리들을 쇠하게 만들고 찬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댄다. 어찌 울타리로 가서 죽지 않고 홀로 깊은 가을에 미련을 두는가. 앞의 향기는 남지 않았고 뒤의 향기는 아직 이르지 않음이 한스럽다. 아침저녁 이러한 마음을 참으며 빙설 속을 배회한다.⁵⁵⁾

깊은 가을, 시든 국화 옆에 사람은 없고 눈만 가득 쌓여있네. 몹시 초췌하다 나무라지 말라, 예전에는 만개함을 보이지 않았던가.

세상은 국화를 몹시 좋아하지만 나는 유독 시든 국화를 동정한다. 계속 흐르는 눈물을 잠시 거두고 잠시나마 감상하길 권한다.⁵⁶⁾

깊은 가을 초췌하게 겨울의 눈보라를 겪어낸 시든 국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들은 같은 국화여도 시든 국화를 꺼린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도 시든 국화

55) “菊開人盡賞，菊殘人盡棄。我昔賞無心，今看有深意。嚴霜摧其根，寒風吹不已。豈獨戀深秋，不向籬間死。前芳恨莫留，後芳猶未至。耐此朝暮心，徘徊冰雪裏。”「殘菊」，《千山詩集》卷3, 59쪽.

56) “殘菊深秋裏，無人雪一堆。莫嫌憔悴甚，曾見十分開。”“世情偏愛菊，吾意獨憐殘。暫收無限淚，權作片時看。”「殘菊二首」，《千山詩集》卷14, 283쪽.

처럼 좌절과 절망을 겪었으므로 오히려 시든 국화에 대한 자기 연민과 동정심을 보인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울타리 곁에서 시들어가는 게 정상이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뒤에 올 향기' 때문에 '빙설 속을 배회'하는 것이다.

'잔국(殘菊)'은 일반적으로 나라의 멸망과 자신의 쓸쓸하고 비참한 처지를 상징한다. 시인은 국화의 일생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여, 비록 청 정부에 의해 내쳐졌지만 명 왕조를 위해 꽃을 피웠던 시절을 위로하면서 다시 필 그날을 기대한다. 시인이 잔국에게 부여하는 혹은 잔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연민이자 생명력이다.

4. 시적 특징과 『천산시집』의 평가

3장의 분석에 따라 함가의 시적 특징을 대략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영물(詠物)을 제재로 한 상징적 표현방식을 취하였다. 예를 들면, '一枝', '殘菊', '落葉', '落花', '衲衣' 등과 같은 시어를 실의(失意)와 망국 및 유배의 이미지로 대체하였다. 망한 나라, 폐허가 된 고향 및 가족과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비유함으로써 유배자로서의 유민의 정서를 잘 표현하였다. 이처럼 '매화', '눈', '국화', '누더기', '낙엽', '기러기' 등의 경물을 빌어 심정을 표현하는 '차물서회(借物抒懷)'의 방식이 함가 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적 환경은 시인의 정서에 영향을 준다. 특히 동북지역의 황량함은 유배자 시승의 외로움과 슬픔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다. 그래서 함가 시의 색조는 차갑고, 시에 드러난 풍경은 음냉하고 음울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산은 '얼음산[氷峰]', '차가운 산[冷山]'이며, 바람은 '북풍[朔風]', '슬픈 바람[悲風]'이며, 구름은 '근심 가득한 구름[愁雲]', '누런 구름[黃雲]'이며, 꿈은 '추운 꿈[寒夢]', '무너진 꿈[殘夢]'이었다. 그리고 국화는 '시든 국화[殘菊]'이고, 잎은 '마지막 한 잎[一枝]'이고, 옷은 '누더기[衲衣]'이고 기러기는 '외로운 기러기[孤雁]'였다. 이러한 차갑고 음울한 북방의 시 언어는 함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셋째, 함가는 시승으로서의 순정한 정신적 경계와 강인한 유민의 절개 및 희망

의 의지도 보여주었다. 겨울을 이겨낸 송백과 같은 끈고 강직한 성품은 『재변기』로 인해 문자옥이 발생했을 때 칭 정권에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태도로 드러났고, 「신묘일에 보제에서 머물며 쓴 팔가」에서 ‘새것으로 헌것을 바꾸라’는 명제 앞에서 ‘불이(不二)’의 의지와 절조를 보여주었다. 또한 「멀리서 미주를 슬퍼하며」와 「이급간을 슬퍼하며」에서는 향청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다음 생에서 연꽃 위로 다시 피어오르기를 희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산 위의 눈을 노래하며」 등에서는 눈과 자신을 등치시켜 순정한 시승의 정신적 경계를 연출하기도 했다.

넷째, 이러한 합가의 시적 특징과 정신세계에 대해 향청운동을 하고 합가와 교분이 있었던 굴대균(屈大均)은 “(합가)가 심양의 수소로 유배가게 되었다. 고통이 조금 안정된 후 깨닫고서 시를 짓거나 혹은 통곡을 하면서 수십 편의 시를 지었고, 이를 ‘잉시(剩詩)’라로 명명했다. 인류의 급변을 몹시 슬퍼하고 나라와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해 감개하며, 일반인과 다른 타고난 훌륭한 성품을 보였다. 일반 사대부들은 그에 미칠 수 없다. 그의 시를 읽으면 군부의 소중함이 절로 몽클하게 느껴진다.”⁵⁷⁾라고 평가했다.

이처럼 합가의 시는 시대를 향한 역사적 기록이자 울결(鬱結)한 내면세계에 대한 외침이기도 하다. 나라와 가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고층과 유배자의 착잡한 심정을 연결하여, 때론 처연하게 때론 강개하게 때론 순정하게 시대적 환경과 자신의 성품을 잘 결합한 시적 풍격을 이루었다.

끝으로, 『천산시집』은 12년 유배 생활의 진실한 모습을 담고 있다. 청사(淸史) 학자 이치정(李治亭)은 『천산시집』의 역사적 가치에 이렇게 평가했다.

먼저, 『천산시집』은 합가 일생의 인생 역정이자 청초 관동(關東) 문화의 실록이기도 하다.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은 일을 『천산시집』에서는 수록했다. 이로써 청초 관동의 역사적 면모를 우리의 눈앞에 밝게 펼쳐보였다. 이는 참으로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천산시집』은 『천산사집(千山史集)』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설사 『성경통지(盛京通志)』같은 여러

57) “(函可) 充戍瀋陽, 痛定而哦, 或歌或哭, 爲詩數十百篇, 命曰『剩詩』. 其痛傷人倫之變, 感慨家國之亡, 至性絕人, 有士大夫之所不能及者, 讀其詩而君父之愛油然而生焉.” 屈大均, 『廣東新語』 卷12, 『千山詩集』附錄6, 「僧祖心詩」, 431쪽.

사적(史籍)과 지방지일지라도 『천산시집』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⁵⁸⁾

청나라가 요동지역으로 들어온 후 경제적, 지리적 상황은 비교적 호전되었지만 문화 분야에서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당시 “성경 지역은 청초 죄인들을 유배 보낸 주요 지역이었으며, 특히 순치 연간의 유배자들은 대부분 이곳으로 유배되었다. ……순치, 강희 연간에 성경 지역으로 유배 온 사람의 수는 수백 명을 웃돌았다.”⁵⁹⁾ 청초 동북지역의 유배자들은 대체로 강남지역의 문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들은 문헌사료, 시사설립, 교육활동, 상공농업, 의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지역 문화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천산시집』을 포함하여 그들이 남긴 학술 업적은 당시 동북지역의 역사문화와 지방사 연구 및 문학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청초 순치, 강희 연간에 특히 요동지역으로 유배된 주요 유배문인과 저작은 함가『천산시집』, 좌무태(左懋泰) 『조동집(徂東集)』, 이정상(李呈祥) 동촌집 『(東村集)』, 계개생(季開生) 『출관초(出關草)』 등 20여 종에 달한다. 이러한 문헌들은 동북지역의 연구자료와 역사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청초 요동지역의 유배자 함가와 『천산시집』을 대상으로 함가의 유배 원인과 가족사, 시 창작 특징 및 함의에 대해 분석했다.

역사가 함가에게 부여한 신분과 함의는 크게 세 가지이다. ‘유민’은 명청교체기의 시대적 변화가 준 신분이었고, ‘유배자’는 청초 문자옥으로 인한 지식인의 시대

58) “首先, 『千山詩集』是函可一生的人生寫照, 也是清初關東文化的實錄. 在史乘不收之事, 『千山詩集』却予以收錄, 從而使清初關東歷史清晰地展現我們的面前! 這是不可多得的, 故『千山詩集』亦可稱為『千山詩集』. 即使其他史籍, 包括地方志書, 如『盛京通志』等, 亦不能取代!” 梁戈峰, 「千山剩人禪師補記」, 『佛教導航』, 2009年4月2日.

59) “盛京地區是清初流放犯人的主要地區, 特別是順治年間的流犯大部發遣至此. ……順治康熙年間的流放到盛京地區的流人文士就不數百.” 楊餘練 等, 『清代東北史』, 遼寧教育出版社, 1991, 533-535쪽.

적 낙인이었고, '승려'는 이로 인해 본인이 선택한 생존방식이었다. 다중의 신분으로 살아온 함가는 시 창작에 대단한 열정과 시적 경지를 보였다. 제자 금수(今羞)는 『천산시집』의 서문에서 “스승이 몽둥이를 들고 한참 부처 앞에 꿇꿇이 서 있다가, 눈앞에 뭔가 느껴지는 바가 있을 때면 바로 스스로 멈추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혹은 길게 천 마디를 이어가거나 혹은 짧게 몇 마디만 했다. 날이 갈수록 쌓여 몇 권이 되었다.”⁶⁰⁾라고 했다.

시 창작에 대한 열정과 시대적 아픔이 가져온 함가 시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창작내용은 주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국을 향한 절개와 항청지사에 대한 추도, 인간적 고독과 노승으로서의 정신적 경계 및 변세의 경물서정 등으로 드러났다. '눈', '매화', '잎', '국화', '낙엽' 등을 제재로 하여 서경(敘景)·기사(記事)·서정(抒情) 등의 방식을 취하였다. 즉 요동의 경물에다 자신의 감정을 투사하여 '나'와 '물'이 잘 결합된 정경융합을 경지를 보여주었다.

함가는 유배된 후에도 승려의 신분으로 요동지역의 사원에서 불법을 선양했다. 하지만 불문에만 몰입하지는 않았다. “외로운 노승 늙어서 더욱 미쳐 날뛰다고 비웃지 마라. 한평생 혹독한 된서리를 만나서이다. 이태백이 거듭 좌천되지 않았더라면, 어찌 야랑(夜郎)에서의 시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⁶¹⁾라고 하면서, 자신을 좌천된 이백으로 비유하면서 유배생활의 고충과 시대적 아픔을 시 창작을 통해 풀어내었다. 그래서 함가의 시는 유민이자 유배자의 정신세계에 대한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초 지식인이자 유배문인으로 살아온 그의 비참한 인생(문자옥, 가족사), 다중적 신분(유민·유배자·승려), 다차원적 정신세계(유·불)는 시 창작과 사상의 근원이 되었고, 이는 청초 유배시의 한 특징을 형성하였다. 특히 그의 유가적 기질은 강한 현실적 관심과 시대의 연민을 보여주었고, 승려로서의 불심은 순정한 정신적 경계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60) “第見師拈錘擊佛之餘，目有觸景有所會，輒不自禁。或累累千言，或寥寥數語，日積成帙。”『題識』，『千山詩集』，17쪽.

61) “莫笑孤僧老更狂，平生奇遇一天霜。不因李白重遭謫，那得題詩到夜郎。”『解嘲』，『千山詩集』卷15，315쪽.

이상의 특징을 담은 『천산시집』은 함가 일생의 인생 역정이자 청초 관동(關東) 문화의 실록이기도 하다. 청초 관동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천산사집(千山史集)’이라는 평가는 『천산시집』이 청초 동북지역 문학적, 지역적 문헌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끝으로 고대 문학 작품이 생산되는 과정과 요인은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하지만 대체로 “행위자-상황-행위-지식생산”이라는 도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함가라는 ‘행위자(유배자)’는 ‘특수한 상황(문자옥) 속에서 ‘행위’(시 창작)를 통해 ‘지식’(『천산시집』)을 생산해내는 도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가 만들어 낸 지식(작품)은 청초의 유배시, 요동지역의 문학이라는 시대적·지역적·문학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이 자신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과 갈등 구조를 통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시 창작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창작행위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창작과정과 그 작품이 어떤 한 시대, 지역, 장르 등의 문학 환경에 새로운 함의와 구별된 특징을 부여한다면 이는 단순한 작품생산을 넘어 문학지식 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한 “행위자-행위-지식생산”을 보다 명료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대 중국 유배시 또는 청초 동북지역의 유배 시에 대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본고는 청초 유배시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함가만의 구별되는 시적 특징과 유배문학사적 의미 및 역사적 함의를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陳伯陶, 『勝朝粵東遺民錄』, 上海古籍出版社, 2011.
 陳伯陶 著·謝創志 標點, 『勝朝粵東遺民錄』, 樂水園印行, 2003.
 叢佩遠, 『中國東北史』, 吉林文史出版社, 2006.
 郭成康·林鐵均, 『清朝文字獄』, 群衆出版社, 1990.
 函可 著, 嚴志雄·楊權 點校, 『千山詩集』, 中央研究院 中國文哲研究所, 2008.

- 函可撰·楊輝校注,『千山詩集校注』,遼海出版社,2007.
- 函可撰·張春著,『千山詩集·不二歌集』,黑龍江大學出版社,2011.
- 何宗美,『明末清初文人結社研究』,南開大學出版社,2003.
- 李興盛,『增訂東北流人史』,黑龍江人民出版社,2008.
- 李興盛,『東北流人史』,黑龍江人民出版社,1990.
- 李治亭,『東北通史』,中州古籍出版社,2001.
- 謝國楨,『明清之際黨社運動考』,上海書店出版社,2006.
- 謝國楨,『清初流人開發東北史』,上海開明出版社,1948.
- 楊餘練等,『清代東北史』,遼寧教育出版社,1991.
- 張書才·杜景華,『清代文字獄案』,紫禁城出版社,1991.
- 方姝孟,『清代東北地區流放文人群體研究』,哈爾濱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3.
- 姜雪松,『清初東北流人詩初探』,黑龍江大學碩士學位論文,2009.
- 馬麗,『清代東北流人方志文化研究』,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3.
- 秦嘉,『函可千山詩集研究』,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3.
- 徐潔,『函可詩歌研究』,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2016.
- 楊麗娜,『清代東北流人詩社及流人詩作研究』,蘇州大學碩士學位論文,2011.
- 于美娜,『函可詩歌研究』,山東大學碩士學位論文,2009.
- 劉國平,「清代東北文學社團:水天社考評」,『社會科學戰線』,1990,第4期.
- 劉海松·曾璐,「論水天詩社」,『學問』,2016,第5期.
- 馬新,「中國歷史上的流放制度」,『文史知識』,1992,第3期.
- 邱林山,「遺民詩僧函可與清初詩壇」,『西北師大學報』,2016,第6期.
- 王雁·趙朗,「流人”函可與《千山詩集》」,『僑園』,2018,第8期.
- 薛虹,「函可和水天詩社」,『史學集刊』,1984,第1期.
- 楊麗娜,「水天詩社的詩歌內容及思想傾向」,『文史哲』,2016,第5期.
- 楊權,「嶺南明遺民僧函可“私攜逆書”案述析」,『學術研究』,2006,第1期.
- 張榮東,「清代東北流放文人的結社活動」,『內蒙古師範大學學報』,2016,第2期.
- 張濤·葉君遠,「文學史視野下的中國古代文人社團」,『河北學刊』,2006,第1期.
- 趙志毅,「清代文字獄辨」,『東南文化』,1997,第3期.

〈Abstract〉

Exiled Intellectual to Dong Bei District in Early Qing Dynasty:
Focused on Han Ke and Poetry

Park, Young-Soon

The first one banished, with literary persecution, to Shenyang(瀋陽) in Dong Bei district in early Qing Dynasty was Han Ke(函可: 1611-1660), a monk. In the time of Nan Ming(南明), he was banished to Shenyang In Shun Zhi (順治) 5th year (year 1648) with the trouble that he had written an unauthorized history, 『Zai Bian Ji(再變紀)』, which has become the first literary persecution happened in early Qing Dynasty. As an adherent of Ming Dynasty and an exile in early Qing Dynasty, Han Ke organized Bing Tian Shi She(氷天詩社) in Shenyang together with other exiles.

In general, if you viewed a literary work as ‘knowledge’ produced by literature, this knowledge (such as Tian Shan Shi Ji) should be produced the producers (exiles) by a practice (poetic creation) in a particular case (literary persecu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this, this paper would like to take a look into the knowledge production process of ‘knowledge-producer-practice-knowledge’ to understand the poets’ club of exiles, and its meaning, periodical and regional.

The ultimate end of this paper is to come to understand what knowledge (works) was produced by the exiles (intellectuals) in the conception of ‘knowledge production (exile poetry) by exile literary persons group (Poets’ Club)’ in what a situation, and to grasp its meaning. For that purpose, this paper would take Han Ke as an example, to take a look into the life and poetry creation of the literary persons banished to Dong Bei district. 『Qian Shan Shi Ji(千山詩集)』, where the poems written by Han Ke are collected, is selected as the principal content for this study.

The conten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the situation of banishment in the Qing Dynasty and the reasons for which Han Ke was banished would be examined. Second, analysing the poems written by Han Ke. Third, the influences of Han Ke to the literature

of Dong Bei district and its evaluation be checked. In addition, this paper would also take note on literary practices of the exiles, their poetic creation and feelings and others.

Key words: Han Ke, banishment, literary persecution, intellectuals, poem, early Qing Dynasty, Dong Bei district

이 논문은 2020년 1월 15일에 접수되어 2020년 2월 4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20년 2월 1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